

출장복명서	일 시	2022년 10월 8일 ~ 10월 12일 (3박 5일)
	장 소	OECD (프랑스, 파리)
	출 장 자	김형태 (PIMAC, 소장) 김탁경 (PIMAC, 민간투자지원실장) 고유은 (PIMAC, 글로벌협력팀장)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및 배경

-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하는 Senior Infrastructure and PPP Officials (SIP, 10/10, 월) 네트워크와 OECD 인프라 포럼(Infrastructure Forum, 10/11, 화) 참석
- OECD는 재정투자 및 PPP를 비롯한 공공투자 전반에 걸친 PIMAC의 국제적인 위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례 SIP 네트워크와 인프라 포럼에 PIMAC 및 기획재정부가 한국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함.
 - OECD SIP 및 인프라 포럼은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PIMAC에서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함께 한국측 대표단으로 참석해온 바 있음.
-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회의로 개최되었던 SIP 및 인프라 포럼을 올해 대면회의로 전환함에 따라 센터 내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최신의 글로벌 아젠다를 모니터링하고자 관련 인력 3인이 참석함.
 - * 그간 매년 3월 개최해 왔으나 올해 10월로 순연하여 대면회의로 개최
 - 금회 회의를 통해 한국의 인프라 및 PPP 현황과 사례를 회원국 인프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한국의 제도를 해외에 홍보함.

□ 출장 일정

- 10월 8일(토) : 출국 및 파리 도착
- 10월 9일(일) : 관계자 미팅
- 10월 10일(월) : SIP Network 참석
- 10월 11일(화) : Infrastructure Forum 참석 및 파리 출발
- 10월 12일(수) : 한국 도착

□ 세부일정

일 자	일 정		비고
10/08(토)	11:30~18:30	인천 → 파리(비행시간 14시간)	
10/09(일)	14:00~18:00	관계자 면담	
10/10(월)	09:00~18:00	15th Annual Meeting of OECD Network of Senior Infrastructure and PPP Officials 참석	
10/11(화)~ 10/12(수)	09:00~18:00 21:00~16:00 (+1일)	Infrastructure Forum 참석 파리 → 인천(비행시간 12시간)	

2. 출장 활동

가. 면담

- 일시 : 10월 9일(일), 14:00
- 장소 : 파리
- 면담자: KDI 김형태, 김탁경, 고유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하승철 참사관
- 내용
 - SIP Network는 회원국의 인프라 거버넌스와 PPP를 주요 업무로 하는 고위급 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OECD의 공공거버넌스 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와 고위 예산 담당자 위원회(Senior Budget Officials Committee)를 지원함.
 -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례를 모으고 이해도 제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한편, OECD는 지난 2020년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인프라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2020 OECD Recommendation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도구, 규범,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전략을 측정하여 이를 인프라 거버넌스 지표(Infrastructure Governance Indicator)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음.
 - 지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설문조사를 지난 5월부터 1달간 실시하였으며, 파트별 설문조사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 파트1: 이해관계자 참여 프레임워크, 참여 방식, 감독 메커니즘
 - 파트2: 인프라 규정과 프레임워크, 허가 및 라이선스, 규제기관과의 거버넌스

- 파트3: 청렴성 전략 프레임워크, 이해상충 및 내부통제와 감사, 외부통제와 감독
- 파트4: 마스터플랜의 작성, 평가 및 분석, 조달과정에서의 각종 지표, 모니터링
- 파트5: 친환경 인프라 계획과 조건, 환경 고려사항 및 환경 리스크 관리, 녹색예산
- 해당 설문조사 답변요청에 대해 PIMAC 내부에서 검토 및 협의하였으나, 본 센터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음.
- PIMAC은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등)에 근거하여 공공투자사업 및 민간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설문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인프라 사업의 전반적/종합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음.
- 초기 계획수립부터 발주, 입찰, 사후관리까지 수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됨.

나. 회의참석

1) 15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Senior Infrastructure and PPP Officials - Infrastructure governance for green and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

- 일시 : 10월 10일(월), 9:00
- 장소 :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김형태, 김탁경, 고유은

- 제15차 OECD 고위 인프라 및 PPP 관계자 네트워크 연례회의(10/10, 월)에서는 기후탄력적 그린 인프라를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1)인프라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의 논의동향, (2) 그린 인프라 전환 방안, (3)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 사업 선정 방안, (4)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제언의 이행, (5)인프라 거버넌스에 있어 OECD와 SIP의 역할, (6)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 등이 논의됨.
- 제15차 SIP 회의는 Infrastructure Canada의 Sean Keenan 국장(Director General, Economic Analysis and Results)이 좌장을 맡음.

□ 개회

- 좌장인 Sean Keenan의 개회사에 이어 OECD 인프라 공공조달 부문 책임자인 Edwin Lau(Head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Procurement Division, Public Governance)의 발표로 진행됨.
- OECD 공공거버넌스 장관급회의에서도 디지털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당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관리와 탄소배출 총량(carbon footprint*) 관리, 그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량강화

에 집중함.

* 탄소발자국: 개인 또는 기업, 국가 등의 단체가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두산백과)

- 권고사항으로는 (1)공감대의 형성 (2)기후 및 환경을 위한 올바른 분석틀의 활용 (3)보다 친환경적이고 탄력적인 공공부문의 육성이 제시됨.
- 인도네시아를 의장으로 하는 G20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워킹그룹에서도 친환경 (green)적이며 탄력적인 인프라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의 전략적 비전과의 일치성과 공공부문 역량강화가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Session 1: 인프라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의 논의동향(New developments in infrastructure governance)

-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회원국 동향을 공유하는 세션으로, 조정 및 감독 기관의 설립, 인프라 계획 및 자금조달 관련 신설 기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근의 제도적 변경 사항을 논의함.
- 미국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David Yi(Performance Manager)는 최근 인프라 관련 제·개정된 법안을 소개함.
 - 반도체와 무선통신 부문 지원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 2022년 8월 상원을 통과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전기차 구입 및 청정에너지 세금우대 조치 등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2022년 8월 상원을 통과함.
 - 2021년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인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는 주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교통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된 내용이며,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coordination, 지방정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fact sheet 작성 등 다방면으로 지원 중임.
- 질의응답 시간에는 ①현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제도화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미국의 체계상 모델 사례를 전파하고 국가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②친환경적 추진방식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탄소배출 감축 프로그램과 가이드스, 인센티브 제공, 세금혜택 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 목표 등이 존재한다고 답변함.

□ **Session 2: 그린 인프라 전환 방안(Steering the green agenda: how infrastructure investment enables the green transition)**

- OECD 인프라 및 공공조달과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인프라의 전략적 역할과 정부 및 OECD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OECD의 그린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 (Survey on Governance for Greener Infrastructure)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함.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투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국가적 및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핵심적임.
 - 특히 미래 투자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과 운송 확보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 인프라 계획이 필요함.
 - 장기 인프라 전략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와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취약한 지역 사회를 포함한 전체 인구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인프라 투자가 그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전략 및 도구가 존재함.
 - Net-Zero Systems by Design(설계단계에서의 탄소중립), 장기 인프라 계획의 기후 영향 평가, 자연자산(natural assets) 활용 등이 있음.
- 아일랜드 공공지출 및 개혁부(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 Reform)의 Kevin Meaney(Principal Officer)는 아일랜드 사례에 따른 그린 인프라 전환에 대해 발표함.
 - 아일랜드 국가 계획 프레임워크로 2018년 발표된 Project Ireland 2040에 따라 향후 인프라 투자가 국가 기후 문제 시스템과 일치해야 함을 강조함.
 - 기존의 공공지출 평가 시스템은 탄소의 잠재가격(shadow price of carbon)만을 화폐가치화 하여 경제성분석에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위한 기준 또한 종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함.
 -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평가 시스템은 반발효과(rebound effect)*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 자동차의 연료효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연료의 사용이 그만큼 감소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반발효과로 인해 실제 감소하는 폭은 더 적다는 연구 결과
 - 이에 기후 리스크와 저감(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을 포함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공공 인프라 투자의 탄소배출 및 환경 영향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의 James Richardson(Chief Economist)은 영국의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함.
 - 위원회는 재무부(HM Treasury) 산하 실행기구(Executive Agency)로서 정부에 장기 대형 인프라와 관련된 자문 및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프라 세부 분야는

에너지, 교통, 수자원 및 폐수, 폐기물, 홍수위험관리 및 ICT를 포함함(주택, 사회인프라, 토지이용 및 농업 분야는 포함하지 않음).

- 최근 개정된 위원회 정관은 기후변화와 대응(resilience) 목표에 관한 내용을 업무범위에 신규 추가하였으며, 위원회는 인프라에 대한 경제 규제와 탄소 감소 목표 등 법적 이행규정에 대해 제언함.

□ **Session 3: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 사업 선정 방안(Strengthening project alignment with green objectives and delivery for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pipeline)**

- OECD 인프라 및 공공조달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특히 환경 및 기후의 부정적 영향은 사전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업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절차에서 환경에 관한 항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논의함.
 - 특히, 기후 변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 방식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환경 영향 및 편익을 화폐화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살펴봄.
 - 사업 우선순위 지정 절차 중 이러한 유형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개발된 평가 도구가 있을지 논의함.
 - 인프라는 장기의 자본 집약적인 투자로, 인프라의 성격, 위치, 설계에 대해 현재에 내린 의사결정이 미래에 해당 기반시설이 가져올 편익의 정도와 광범위한 정책목표와 일치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정부는 정책 목표와 글로벌 규정을 달성하는 것에 가장 부합한 기반사업을 식별하고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맥락에서 인프라 투자는 여러 경제, 사회 및 환경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는 사업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서로 다르고 때로는 경쟁하는 목표를 가진 사업들을 평가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의사결정자에게 큰 과제일 것임.
- 이탈리아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모빌리티부(Ministry of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Mobility)의 Davide Ciferri(Head of the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Task Force)는 이탈리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해 발표함.
 - 지속 가능한 인프라 평가란, 다기준분석을 포함한 사전평가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수행되며, 재무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됨.
 - ①정책일관성, ②효율성 및 효과성(기간 및 목표 달성 여부), ③유연성(기술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 ④분석의 일관성, ⑤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평가함.
 - 또한, 경제성(SDG에 기여, 중장기 영향), 환경성(사업의 탄소발자국 및 에너지 균형 등

에 대한 생애주기 평가를 포함), 사회성(고용유발효과 등), 제도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음.

- Infrastructure Canada의 경제분석 및 결과팀(Economic Analysis and Results)의 Sean Keenan(Head of the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Task Force)은 캐나다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에 대해 발표함.
 - 캐나다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틀을 활용하고 있음.
 - 캐나다 인프라 은행을 통한 재정 등으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특별재원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인프라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교통에서 zero emission이 포함되었고,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은 국가 적응 전략(National Adaptation Strategy)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 인프라 은행에서 참여하고 있는 Regina 폐수처리 PPP 사업을 바이오연료 사업 사례로 제시함.
-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의 사업평가에서 환경 항목에 대한 분석 예시와 정량화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하고 국제 best practice 등 모델 케이스에 대한 공유를 요청함. 탄소비용을 측정한 보고서들이 존재하며, 그럼에도 선형적인 사업비용을 비선형적인 환경비용에 호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다기준 분석에서 환경항목을 어떤 층위에 둘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과제일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이탈리아의 지속가능 보고서의 ①성격과 수행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동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평가하는 것이고 보완적인 보고서이며 환경영향평가 수행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답변함. ②중복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비록 평가 항목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있으나 중복계상의 위험이 있는 것도 맞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 답변함.

□ Session 4: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제언의 이행(Implementing the OECD Recommendation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 OECD 인프라 및 공공조달과는 인프라 거버넌스 지표 사업 2단계에 대한 결과 초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함.
 - OECD 사무국은 또한 유용한 지침, 정책 도구, 사례 연구 및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하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툴키트를 발표함.
 - 인프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 강점 및 개선을 위한 핵심 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OECD 모범 사례를 실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와 사례가 필요함.
 - OECD의 인프라 거버넌스 지표(Indicators) 및 실행(Implementation) 도구(Toolkit)는 정부

가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OECD 인프라 거버넌스 권고에 포함된 각 항목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EU는 기술지원을 통해 개혁을 지원하고 공공투자관리에서 환경요소를 고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관련 기관들이 만든 다양한 틀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차별성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며, 이번에 제시한 틀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기위한 목표로 구축되었다고 답변함.

□ **Session 5: 인프라 거버넌스에 있어 OECD와 SIP의 역할(The role and mission of the SIP Network: mapping the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framework in OECD countries)**

- OECD 인프라 및 공공조달과는 SIP 네트워크의 역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우수한 인프라 거버넌스 사례를 촉진하고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함.
 - 인프라 계획 및 조달의 수평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대개 인프라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두고 있음.
 - 이러한 기관(예: 인프라 계획 부처, 재무 부처, 부문별 실행 부처, 담당 센터 등 관련 기관, 인프라 위원회 및 은행)의 거버넌스와 활동 범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한 각 국가별 특징, 법, 정부 능력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
 - 기관은 종종 보완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역할을 갖게 되었을 수 있음.
 - 현재 모든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기후 전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기후 후 변화를 고려하여 생애주기 동안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하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국가는 기존 인프라 거버넌스를 재고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을 수 있음.
 - OECD 고위 인프라 및 PPP 네트워크(SIP 네트워크)는 지난 15년 동안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해 국제적인 공유를 이어오고 이를 개선해 왔음.
 - 2006년 시작된 이후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제도와 회원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화해 왔음.
- OECD 인프라 및 공공조달과는 이탈리아와 수행한 인프라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발표함.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수행한 사업 평가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음.
 - 2016년 개선작업을 통해 우선순위 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국가의 필요를 반영한 일반 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련 부처가 문서를 작성하며 총리가 승인하고 각 분야별 인프라 관리인이 각 분야 기본계획-실행계획-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함.
 - 또한 인프라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기관을 설치함.

- 콜롬비아 국가 인프라 개발은행(Infrastructure National Development Bank)의 Rafael Herz(Project Structuring Vice-president)는 콜롬비아 재무부 및 관련 기관의 투자 전((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비평가에 대해 논의함.

□ **Session 6: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 investment under a complex and uncertain economic context)**

- 세계 GDP 성장률은 올해 3%로 급격히 둔화되고 2023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의 실질 소득과 지출에 타격을 가하고 있음(OECD, 2022).
-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계획하고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질 것임.
 - 특히 청정 에너지 공급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물류를 개선하고 생산 체인에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 예산 우선순위 및 정부재정 압박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프라에 대한 기존 및 미래 투자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분명함.
- 칠레 재무부의 Rocio Valdés Sepulveda(Macroeconomic Advisor)는 투자계획을 하는 칠레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발표함.
- OECD 인프라 및 공공조달과의 Dejan Makovsek(Policy Analyst)는 인프라 계획 및 투자에 대한 현재 경제 상황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함.
 - 2004년 도입된 경쟁적 대화 방식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PPP보다는 RAB 방식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Meridiam사(事)의 Stephane Gallon(Chief Economist - Global Risk Officer)은 민간의 관점에서 현 경제상황을 조망하며 신규 인프라 사업에 대해 발표함.
 - 단기적 관점에서, 기존 인프라 사업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availability-base(AP)의 PPP 사업은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구조임.
 - 또한 시장기반형 사업은 오히려 AP 방식의 사업보다도 잘 견디고 있는데, 이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며 구조적인 협력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당면된 불확실성에 대해, 현재 준비 중(pipeline)인 사업들은 현금흐름의 변화, 할인율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또한 EPC 계약자들의 참여의지가 다소 불확실해 보이며, 이미 PPP와 같은 기간고정형(fixed-term) 사업계약에 참여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음.
 - 파이낸싱 비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리스크 헤징을 고안해야 할 필요

요성이 있으며, 또한 기존의 방식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임.
· 새로운 조달 모델, 예컨대 사업 준비 단계에서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정부는 투자자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언제나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은 동유럽 국가의 에너지 전환 사업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스태그플레이션 직면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줄어들 수 있음.
 - 지난 10년은 정상적인 기간이 아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정부가 언제까지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민간은 지속적이며 예민하게 살필 것임.

2) Infrastructure Forum

- The pathway to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

- 일시 : 10월 11일(ghk), 9:00
- 장소 :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김형태, 김탁경, 고유은

□ 시민의 생산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인프라의 개발

- OECD 공공거버넌스국의 인프라 및 공공조달과장인 Edwin Lau가 사회를 맡고,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과 Enrico Giovannini 이탈리아 지속가능 인프라 모빌리티 장관이 발표자로 참여함.
- 주요국들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일치시키는 정책에 대해 논의함.
 - 특히 모든 인프라 행위자를 모두 참여시키는 방안, 품질과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 기후변화 전환을 위한 인프라 계획

-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인 Elsa Pilichowski가 사회를 맡고, 브라질 재무부의 Edson Sobrinho 인프라개발사무국장과 Ross Copland 뉴질랜드 인프라 위원회(New Zealand Infrastructure Commission, Te Waihanga) 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함.
- 인프라 투자가 친환경 전환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함.
- 인프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시설이 친환경적 전환을 지원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함.
 - 여기에는 국가 기후 공약이 인프라, 지역 개발, 부문별 계획에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교통 및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있어 인프라 투자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함.
 - 이러한 노력은 각국의 Net Zero Emission 약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여기에는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중앙, 환경, 재무 및 외교 관련 부처, 그리고 인프라 계획 및 조율기관 간 긴밀한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 그 외에도 조기에 의미있는 대중의 참여 절차도 매우 중요한데, 모든 이해관계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의 생활과 이동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시설의 생애주기 동안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임.
-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통한 고품질 인프라 투자(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QII) 원칙의 이행
- OECD 재무 및 기업국 부국장인 Nicolas Pinaud가 사회를 맡고, EDHECInfra Frédéric Blanc-Brude Director, 아일랜드 공공지출 및 개혁부 Ken Cleary 그린예산네트워크 Chair,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Omar Chaudray 전략 및 경제 - 인프라 Global Head, 미국 국무부 개발금융부 Carol Volk 인프라개발부 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함.
 -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 개발 차원에서의 측정 방법론을 포함하여 QII 원칙을 이행하는 전략과 절차에 대해 논의함.
 -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고품질 인프라 사업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선정 및 투자 절차와 같은 전략적 인프라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함.
 - G20 QII 원칙은 인프라 시설의 생애기간 동안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복원력(resilience) 구축을 포함한 사회 및 환경적 고려사항을 통합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것임.
 - 이 원칙은 인프라가 경제적 번영에 중요한 동인이며 잘 구축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은 인프라 투자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한다는 글로벌 합의를 기반으로 함.
 -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자금조달 및 인프라 제공 절차에서의 구체적인 개선과 이와 동시에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안목이 요구됨.
 - 인프라 거버넌스는 각 부문 및 모든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즉 잘 관리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에 기여하며, 이는 QII의 핵심 원칙인 인프라 의사결정의 완전성(integrity) 보장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임.

다. 회의 전경



15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Senior Infrastructure and PPP Officials



Infrastructure Forum